



## 林道 1,000 km 시설, 경영기반 확충

—經營의 調和로 公益機能 提高—

營林局長 林 鍾 潤

- 山林經營과 地域開發을 爲한 林道施設擴大
- 國民의 保健休養處提供을 爲한 自然休養林의 增設運營
- 木材供給의 圓滑과 山林의 公益機能增進을 爲한 國有林擴大와 貸付地의 徹底한 管理
- 山地의 合理的인 保全管理와 林野去來秩序確立
- 木材需給과 林產資源增殖을 爲한 育林的伐採施業 등에 重點을 두어 推進할 計劃이다.

### 〈林道施設事業〉

林道는 山林經營面에서는 必須의인 基盤施設이고 地域社會의 產業交通에도 크게 寄與하는 復合交通施設이라 할수 있다.

더욱이 近間에는 農村의 人力不足과 勞賃上昇으로 山林作業에 必要한 勞務를 最大限 機械化하여야 할 與件이며 都農을 不拘하고 自動車文化가 急增하고 있어 이를 收容하기 爲하여는 交通路(林道)가 早速히 擴大施設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林道의 必要性이 切迫함에도 現在까지의 施設距離는 2,500餘km로서 ha當密度는 0.4m에 不過한 實情이므로 政府에서는 2,010년까지 總 56千km를 開設하여 現在의 美國水準인 ha當 10m程度가 되도록 長期計劃을 樹立推進中이다.

그러나 이 林道를 施設함에는 莫大한 工事費가 所要됨에도 山主는 負擔能力이 없

고 政府는 時急한 綠化事業에 優先하다보니 그 實積은 꽤 不振하였다.

따라서 이 林道施設은 綠化事業이 어느 程度 達成된 1984年度부터 始作하였으나豫算不足으로 積極的인 推進을 하지 못하다가 近年에와서 年間 200~300km씩 推進하였으며 '90年에는 622km를 開設하였다.

今年에는 우리 林道施設史上 最大物量인 1,000km (國有林 520km, 民有林 480km)를 施設할 計劃이며 1km當 工事費는 約 27百萬원으로, 國費 50%, 地方費 40%, 山主 10%의 負擔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앞으로 이 林道事業을 長期目標대로 推進하기 爲해서는 年間 最少限 1,000km以上 2,000餘km씩 開設하여야 하는바 이의 效率의인 推進을 할수 있도록 昨年에 林道에 關한 各種規定을 山林法에 反映改正하고 林道基本路網의 事前選定, 適期施工을 爲한

施工前年度設計, 專門事業團組織, 施工現場의 林道技術者 配置 등 推進體制를 갖추어 가고 있다.

今年의 計劃된 工事を 効果的으로 實行하기 為해서는 年初부터 豫定地選定, 設計 ('90年未設計分)를 促進하여 早期 着工하고 技術的인 工法으로 適期에 完工되도록 努力할 것이다.

#### 〈自然休養林造成管理〉

山林의 機能은 木材를 비롯하여 各種副產物等 物資를 供給하는 經濟的機能과 國土保全, 水源涵養, 空氣淨化, 景觀 및 保健休養등의 公益機能을 가지고 있다.

過去 農耕社會時代에는 主로 物資供給機能이 為主였으나 相對的으로 公益機能의 比重이 急進的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 中에서도 山林의 保健休養機能을 매우 渴望하고 있다.

이와 같은 需要趨勢에 따라 政府는 山水景觀이 좋은 山林을 自然休養林으로 指定하여 年次的으로 必要한 施設을 擴大하여 2,000年까지 100個所를 造成할 目標로 推進中이다.

現在까지 造成實績은 '88年부터 3個年間에 14個所를 施設하여 國民의 休養處로 提供하여 好評을 받고 있으며 今年에도 總 13個所 (國特會計 5個所, 一般會計 8個所)를 造成할 計劃이다.

이 自然休養林은 一般觀光地와는 달리 山地毀損을 最少化하고 自然은 最大限 保存하면서 꼭 必要한 便益施設만하여 글자 그대로 快適한 自然環境속에서 조용히 情緒의으로 쉴 수 있게 하고자 하는것이 그 特色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各己趣向대로 不

便 없이 利用토록 하기 為하여는 進入道路, 駐車場, 散策路, 化粧室, 캠프장, 어린이놀이터, 烹事場등 必要한 基本施設이 되어야 하고 立地與件에 따라 林產物販賣場, 水泳場, 뉘시터, 動植物園, 山林博物館등 特殊施設도 갖추어야 하나, 豫算不足으로 充分한 施設을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所要豫算確保에 努力하여 完璧한 施設이 되도록 힘써 나갈것이다.

앞으로 이 休養林施設의 計劃的인 推進을 為하여 今年中에 13個所의 新設 및 既往造成된 14個所의 補完과 아울러 全國的으로 造成候補地를 調査確認하여 이를 告示하고 이에 依據 年次的으로 推進할 것이며 限定된 政府豫算만으로는 어려우므로 私有林에 대하여는 山主의 申請이 있으면 適格地는 民資로서 施設토록하는 方法도 竝行推進해나갈 計劃이다.

#### 〈國有林의 擴大와 貸付地管理〉

木材需給의 長期安定的供給과 山林의 公益機能增進을 為하여는 國有林面積이 擴大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國有林面積은 總山林面積의 20%인 133萬ha로서 山林廳所官이 122萬ha이고 他部處所管이 11萬ha로 되어 있으며 山林所管은 經營價值가 있는 要存國有林이 97萬ha이고 小面積으로 分散된 不要存國有林이 25萬ha로 되어있다.

따라서 國家管理에 의한 山林機能의 提高를 為하여 國有林面積率을 現在의 20%에서 2030年代까지 40%가 되도록 擴大하는 長期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為하여 私有林의 買收, 隱匿無主山林의 還收 小面積分散國有林과의 交換등의 方法으로 推進中에 있다.

위와같은 方法으로 그간의 推進實績은 年間 10,000ha 規模로 擴大해오고 있으며 今年에도 그 水準以上으로 擴大할 計劃이다.

한편 不要存國有林中 小面積分散山林은 造林이나 各種產業用地로 貸付(分收林設定)를 하여 有用하게 活用토록하고 있는바 이의 適正한 管理를 為하여 新規貸付는 關係規定에 依據 嚴正審查 許可하고 既往의 貸付地에 對하여는 昨年の 一齊調查結果에 對한 後續措置와 아울러 持續的으로 事後管理를 徹底히하여 山地가 効率的으로 活用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山地의 保全과 去來秩序確立

山地의 效率的인 利用管理를 為하여 全國의 山林을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로 區分하고 있는바 保全林地는 木材供給源이 되는 生產林地와 公園이나 風致林等 環境林地등이고 準保全林地는 他用途로 活用할수 있는 林地로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保全林地는 木材資源增築과 公益機能確保를 為하여 이는 嚴格히 保存토록하고 林業經營目的以外의 他用途需要는 準保全林地에서 利用토록 山地管理를 할것이며 이 施策이 無理없이 嚴正하게 違行될수 있도록 合理的인 山地利用區分調査와 關聯施策을 整備해 나갈것이다.

한편 山地가 投機의 對象이 絶對되지 않고 生產的으로만 利用되도록 하기 為하여 昨年에 山林法을 改正하여 林野를 去來時는 實需要者만 買收할수 있도록하는 林野賣買證明制度를 運用하고 있다.

이 制度의 施行으로 善良한 山主나 經營目的으로 林野를 買收코자하는 境遇는 多少不便이 있을것이나 惡性的인 林野投機行

爲를 根絕하고 山林經營의 基盤을 構築하기 為해서는 不可避한 措置이므로 이 賣買證明은 關聯法規에 의해 嚴正하게 審查發給이 되도록 할 것이다.

### 〈木材需給과 育林의 伐採施業〉

우리나라의 年間木材需要量은 約1千만m<sup>3</sup>로서 이 中 85%는 外材에 依存하고있고 15%程度를 内材로 充當하고 있다.

이와같은 内外材供給比率의 巴塘은 國內木材資源은 아직 絶對蓄積量이 貧弱할뿐아니라 大部分 小徑級의 幼令林이므로 節伐을 하여 國내木材資源을 增築하고 用途에 맞는 適切한 需給을 期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外材는 海外山林開發을 擴大하고 導入先을 多邊化하여 必要한 材種을 有利한 價格으로 適期에 確保될 수 있도록 外交的 努力を 하고있으며 國내材는 营林計劃에 의한 計劃的인 施業을 為主로 하면서 病害蟲被害林과 造林및 各種產業用支障木伐採를 優先하고 未來林產資源의 質量의인 增蓄을 圖謀하기 為하여 育林의 間伐을 最大限 實施해 나갈 것이다.

이와같이 所要木材를 確保하여 外材는 主로 合板, 建築, 家具등 大徑材需要에 充當하고 國내材는 鑛山坑木, 亂木, 보-드類, 土木建築構造材등으로 需給하여 國家產業遂行에 蹤跌이 없도록하면서 우리 山林이 育林의 伐採施業이 되도록 推進해 나갈것이다.

아울러 以上과 같은 重點施策事業이 보다 效率的으로 推進되도록 合理的인 政策開發, 關聯法規의 整備, 所要豫算의 確保, 必要한 技術教育, 营林官署勤務環境改善등 附隨되는 支援業務에도 最善의 努力を 할 것이다.